



신역사주의 관점에서 본 청소년의 학교와의 불화

-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를 중심으로

Vom Konflikt der Jugendlichen mit der Schule anhand der neu-historistischen Methode – Am Beispiel von Hermann Hesses Unterm Rad

저자 (Authors)	은정윤 Eun Tscheong-Yun
출처 (Source)	헤세연구 18 , 2007.12, 25-48 (24 pages) Hesse-Forschung 18 , 2007.12, 25-48 (24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헤세학회 Koreanische-Hesse-Gesellschaft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1397321
APA Style	은정윤 (2007). 신역사주의 관점에서 본 청소년의 학교와의 불화. 헤세연구, 18, 25-48.
이용정보 (Accessed)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165.***.117.111 2017/11/07 17:40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역사주의 관점에서 본 청소년의 학교와의 불화*

-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를 중심으로

은정윤 (성신여대)

I. 들어가는 말

청소년의 정신적 건강과 청소년기의 정체성 확립에 문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청소년층의 문학에 대한 관심은 적은 편이었다. 더구나 한국 문학에서는 교육적 의도가 아동 문학에 치우치면서 청소년 문학은 사각 지대로 몰려가 있는 실정이고, 한국 문학의 경우 아직 ‘청소년 문학’의 장르가 분명히 부각되지 않았다. 따라서 학교 성적과 대학 입시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오늘날 한국 청소년들이 읽고 있는 문학 작품의 대부분은 대학 입시를 위한 ‘논술 대비 권장 도서’ 목록에서 추천하고 있는 문학사적 검증을 거친 세계 문학이다. 그러나 이 권장 도서들은 청소년들이 공감하고 즐겨 읽을 수 있는 청소년의 삶과 청소년의 정체성 문제를 다룬 책들이 아니라 대학생들도 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의 책들이 대부분이다.

‘청소년의 학교와의 불화’라는 주제로 본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헤르만 헤세 Hermann Hesse의 소설 『수레바퀴 아래서 Unterm Rad』(1906)는 비록 세기 전환기의 독일 사회를 배경으로 씌어졌지만, 과열된 입시 경쟁으로 인해 성적에 대한 압박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오늘날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청소년의 삶과 현실을 다룬 책이다. 마울브론 신학교라는 엄격한 기숙학교의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오로지 학교 성적에만 매달리다 신경 쇠약에 걸려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헤세의 주인공 한스 기벤라트 Hans

* 이 논문은 2006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6-353-A00129)

Giebenrath의 이야기는 오늘날은 독일 청소년들보다는 오히려 한국 청소년들이 더 공감할 것이다.

입시철만 되면 자살하는 수험생의 이야기가 신문이나 TV 등에 나오곤 하는데, 얼마 전에는 한 TV 드라마에서 ‘강남엄마 따라잡기’라는 제목으로 어머니의 강요로 적성을 무시한 채 영재들이 다니는 특목고인 과학고에 진학하여 자신보다 공부 잘 하는 친구들 틈에서 극심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결국 투신자살을 하게 되는 어느 청소년의 슬픈 최후를 그려 한국 교육계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장면이라는 평을 들었다. 이렇듯 ‘청소년의 학교와의 불화’라는 문제는 독일 문학 작품에서나 나오고 한국 사회에서만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에서나 이미 존재했고 또 앞으로도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이다.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는 세기 전환기의 독일 사회를 역사적 배경으로 하여 학교 비판의 맥락에서 씌어졌다. 그렇지만 이 소설은 헤세 자신이 사춘기 시절에 직접 겪은 위기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헤세의 소설 『수레바퀴 아래서』에서 한스 기벤라트가 신학교에서 실패한 원인을 밝혀보기 위해서는 작품의 미학적 구조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작가 헤세가 정신 요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던 진료 기록과 같은 비문학 텍스트도 고찰 대상으로 하여, 문학 텍스트인 『수레바퀴 아래서』와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신역사주의 New Historicism’ 문학 비평 방법론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신역사주의’는 “텍스트의 역사성에 대한 관심은 역사의 텍스트성에 대한 관심 Interesse an der Geschichtlichkeit von Texten und der Textualität der Geschichte”¹⁾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문학상의 허구를 역사적 자료로서 관찰할 뿐만 아니라 역사 텍스트를 픽션으로 다룸으로써 문학 텍스트와 비문학 텍스트간의 대화를 시도한다. 이처럼 ‘신역사주의’는 일기, 편지, 병원의 진료 기록 등과 같은 비문학 텍스트를 문학 텍스트와 동등하게 담론 분석에 활용함으로써 문학 연구를 통해 문화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1) Louis A. Montrose: Die Renaissance behaupten. Poetik und Politik der Kultur. In: Bassler, Moritz(Hg.): New Historicism. Literaturgeschichte als Poetik der Kultur. Frankfurt am Main 1996. S. 67.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문학’이라고 하면 아동 문학을 제외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인간의 발달 과정에 있어 아동과 청소년 시기의 경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학자들마다 ‘청소년 문학’을 정의하는 견해가 다르고 기준도 달랐지만, 한스 하이노 에버스 Hans-Heino Ewers의 개념 정리 이래로 아동 문학과 청소년 문학을 모두 포함하는 ‘아동·청소년 문학 Kinder- und Jugendliteratur’이라고 지칭하며, 이 두 문학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으려는 연구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²⁾ 독일의 본격적인 ‘아동·청소년 문학’의 역사는 18세기 말부터 시작되고 있지만, 독일 문예학에서 이 분야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에 와서부터이다.³⁾ 그 동안 독일 청소년 문학은 지나치게 교육적으로 편향된 목적의식으로 인해 문학이 본래 갖추어야 하는 미학적 자질이 정당하게 평가되지 못한 채, 진지한 학문적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문학이란 사회적, 정치적으로 중요하며 문예학이란 본래 기억 작업 Erinnerungsarbeit”⁴⁾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신역사주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가 엮여 있는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밝혀봄으로써, 독일 청소년 문학에 대해 그 동안 견지해온 시각인 미학적 취약점과 “사회적, 정치적 현실 묘사의 결핍 Mangel an Darstellungen der gesellschaftlichen und politischen Realität”⁵⁾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신역사주의’는 “문학 텍스트를 ‘맥락’의 관점으로 개방 die Öffnung des literarischen Textes auf einen ‘Kontext’ hin”⁶⁾할 것을 선언하기 때문에, 과거의 텍스트인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는 그의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통해 현재를 비판적으로 보게 함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시의성

2) Vgl. Hans-Heino Ewers: Literatur für Kinder und Jugendliche. Eine Einführung, München 2000.

3) 김정연: 독일 ‘아동 및 청소년문학’ 연구: 교육적 관점과 미적 관점의 역사적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1쪽 참조.

4) Anton Kaes: Einführung in den New Historicism. 실린 곳: 독일어문학회연구. 제15집 (2006). S. 363.

5) Gundel Mattenklott: Zauberkreide. Kinderliteratur seit 1945. Frankfurt am Main 1994. S. 18.

6) Hartmut Böhme/ Peter Matussek/ Lothar Müller: Orientierung. Kulturwissenschaft. Was sie kann, was sie will. Hamburg 2002. S. 14.

이 있고 감동을 준다. 다시 말하자면, 헤세의 텍스트에 나타난 콘텍스트가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과 유사해서 우리의 학교 교육 문제를 되짚어보고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 따라서 헤세의 소설에 들어 있는 성적 위주의 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해 퇴학당한 청소년의 이야기, 그리고 이를 통해 드러나는 학교 교육과 교사들에 대한 비판, 청소년기에 사귀는 친구의 중요성과 이성 교제 문제, 청소년기 학창 시절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독특한 학교 기숙사 문화 등에 대한 연구는 한국 청소년의 ‘학교와의 불화’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I. 세기 전환기 문학 작품에 나타난 학교 비판

19세기 말 독일에서는 청소년의 자살, 특히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자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 문제를 다룬 많은 비판적 보고서는 학교 학생의 자살이 세기 전환기에 크게 증가했음을 강조했고, ‘프로이센에서는 1주일에 한 명의 학생이 자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통계학자도 있었다.⁷⁾ 뿐만 아니라 세기 전환기의 학교 비판적 토론에서는 “실제로 자살한 학생과 픽션에서 일어난 자살한 학생 *die realen und fiktiven Schülerselbstmorde*”⁸⁾에 대한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죄지는 자들은 부모, 학교 제도 그리고 빌헬름 제국이라는 사실 뿐이고, 자살한 학생에 대한 신빙성 있는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자살한 학생과 픽션에서 일어난 자살한 학생’에 대한 한계도 분명하지 않았다.⁹⁾ 그 당시 청소년의 자살은 마치 세기 전환기 시기의 하나의 문화 현상처럼 여겨질 정도였다.

7) 세기 전환기의 자살 학생의 통계와 원인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York-Gothart Mix: Selbstmord der Jugend. H. Falladas *Der junge Goedeschal*, J. R. Bechers *Abschied*, H. Hesses *Unterm Rad* und der Erziehungsalltag im Kaiserreich. In: Germanisch-Romanische Monatsschrift. Band 44(1994). S. 63-76.

8) Paul Mog: Opfertode. Hesses *Unterm Rad* und die literarische Schulkritik der Jahrhundertwende. In: Cornelia Blasberg(Hg.): Hermann Hesse 1877 -1962 - 2002. Tübingen 2003. S. 14.

9) Vgl. ebd.

이처럼 자살하는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독일의 교육 제도와 학교를 개혁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 당시 청소년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군사학교나 기숙학교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그러자 당대의 작가들은 이 문제를 문학의 새로운 테마로 받아들이고, 빌헬름 2세의 통치 하에 있던 독일 제국의 교육 제도와 엄격한 규율과 통제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교육과 교사들을 비판하는 작품들을 속속 내놓기 시작했다.¹⁰⁾ 여기서는 우선 강압적이고 학생들의 개성을 말살시키는 획일화된 교육을 하고 있는 세기 전환기의 다양한 학교, 즉 김나지움, 군사학교 그리고 하인 양성 학교에서 ‘청소년의 학교와의 불화’ 문제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프랑크 베데킨트 Frank Wedekind는 『사춘기 Frühlings Erwachen』(1891)에서 부모와 교사로 대변되는 기성 사회의 압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그릇된 성교육의 희생이 된 청소년의 비극적 죽음을 통해 독일 문학 사상 최초로 사춘기의 성문제를 과감하게 사회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감수성이 예민하고 소심한 모리츠 슈티펠 Moritz Stiefel은 학교에서 낙제한 후 부모가 실망할 것을 걱정한 나머지 자살한다. 학교 성적에 대한 부담감이 청소년을 좌절과 죽음으로 치닫게 만드는 과정을 리얼하게 그리고 있는 이 작품은 “작가 베데킨트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과 학교 동창생들에게서 들은 실화에 근거를 두고 썼다고 알려지고 있다”¹¹⁾. 베데킨트의 이 작품은 교사들을 모두 희화화하여 웃음거리로 표현함으로써 당시의 잘못된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학교 교육 문제를 둘러싼 부모와 교사들의 이해 부족이 청소년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 작품은 비록 세기 전환기의 독일을 배경으로 하여 씌어졌지만, 오늘날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조명하고 그 해결책을 강구하는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875년 프라하에서 미술가로 태어나 신체가 허약하고 감정이 예민한 라이너 마리아 릴케 Rainer Maria Rilke는 11살 되던 해 부모의 이혼에 따른 후속책으

10) Vgl. Joachim Noob: Der Schülerelbstmord in der deutschen Literatur um die Jahrhundertwende. Heidelberg 1998. S. 95.

11) 김종대: 독일 청년문학과 청년문화. 문학과 지성사 1990. 65쪽.

로 쌍 필텐에 있는 소년 군사학교에 보내진다. 그리고 4년 후인 1890년에는 매리쉬-바이스키르헨의 고등 군사학교에 들어간다. 릴케의 『체조시간 Die Turnstunde』(1902)은 그의 낯설고 괴로웠던 군사학교 시절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씌어졌는데, 이 글을 쓰면서 릴케는 그 때 받았던 상처를 스스로 치료하고 있다. 평소에 체조를 싫어하고 잘 하지 못하던 칼 그루버 Karl Gruber라는 소년이 무리하다 쓰러지자, 군사학교의 체조 교사인 하사관은 그의 상관을 향해 그 소년은 “피병쟁이입니다. 중위님! 피병쟁이요! Ein Simulant, Herr Oberlieutenant, ein Simulant!”¹²⁾라고 소리친다. 칼 그루버는 결국 죽게 되고, 동급생의 죽음을 목격한 군사학교 소년들의 반응을 통해 공포에 가득 찬 군사학교의 분위기가 전달된다. 릴케는 어린 시절의 감옥이라 칭하는 자신의 낯설고 괴로웠던 군사학교 시절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체조시간』을 통해 군대식의 엄격한 통제와 규율 하에 획일화된 교육을 시키고 있는 독일 제국의 학교 교육과 교사를 비판하고 있다.

로버트 발저 Robert Walser의 『야콥 폰 군텐 Jakob von Gunten』(1909)은 세기 전환기의 독일의 하인 양성 학교를 비판하고 있다. 이 소설은 베를린의 하인 양성 학교를 다닌 적이 있는 작가 자신의 체험을 근거로 하여 씌어졌는데, 귀족 집안 출신의 16세 소년 야콥은 집을 뛰쳐나와 대도시에서 하인 양성 학교에 들어간다. 야콥이 다니고 있는 벤야멘타 하인 양성 학교의 목표는 생도들을 순종적이고 인내하고 겸손한 태도를 갖도록 교육시키는 것이다. 수업은 이론과 실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론 수업은 무엇보다 생도들의 암기력을 기르는 것이다. 실기 부분은 올바른 생활을 습관화시키는 것이다. 야콥은 이러한 학교 교육을 내심 무시한다. 야콥의 눈에는 벤야멘타 하인 양성 학교의 교사들도 부정적으로 비친다.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여전히 잠들어 있다. 아니면 그들은 자신의 직업을 잊은 것 같다.

Entweder sind die Lehrer unseres Institutes gar nicht vorhanden, oder sie schlafen noch immer, oder sie scheinen ihren Beruf vergessen zu haben.¹³⁾

12) Rainer Maria Rilke: Die Turnstunde. In: ders.: Werke in sechs Bänden. Band III,1. Insel Verlag. Frankfurt am Main 1982. S. 67.

그 밖에도 에밀 슈트라우스 Emil Strauß의 『친구 하인 Freund Hain』(1902)이나 하인리히 만 Heinrich Mann의 『운라트 교수 혹은 폭군의 종말 Professor Unrat oder das Ende eines Tyrannen』(1905)에서도 그 당시 교사들의 비교육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III. 자전 소설 『수레바퀴 아래서』에서의 학교 비판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는 위에서 살펴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세기 전환기의 독일 사회를 역사적 배경으로 하여 학교 비판의 맥락에서 씌어진 교육 소설이다. 그러나 이 소설은 “그 초점을 피교육자인 소년”¹⁴⁾에게 맞추어 강압적인 학교 제도와 아버지, 마을 교회의 목사, 교장을 비롯한 학교 교사들의 몰이해와 명예욕이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의 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12살이었던 헤세는 1890년 2월에 부모를 따라 괴핑엔에 가서 라틴어 학교를 다니면서 뷔르템베르크 주정부 시험을 대비한다. 그 후 헤세는 1891년 7월에 슈투트가르트에서 주정부 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고, 같은 해 9월에 명문 개신교 신학교이자 수도원인 마울브론 기숙 신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작가가 헤세가 그랬던 것처럼, 헤세의 소설 『수레바퀴 아래서』에서 “의심할 여지 없이 재능 있는 아이 ohne Zweifel ein begabtes Kind”¹⁵⁾인 주인공 한스 기벤라트는 뷔르템베르크 주정부가 실시하는 장학생 선발 시험에 합격하고, 얼마 동안의 준비 기간을 가진 후 마울브론 신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그런데 100여 년 전에 독일을 배경으로 씌어진 헤세의 이 소설에서 한스 기벤라트가 주정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정규 수업 이외에 과외 공부를 하고 또 집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한 구절은, 방과 후 사설 학원을 서너 군데 다니며 과외 수업을 받는 한국 학생들의 교육 현실을 생생하

13) Robert Walser: Jakob von Gunten. Ein Tagebuch, Zürich/Frankfurt am Main 1985. S. 58.

14) 김석도: 헤르만 헤세의 교육관. 실린 곳: 서울대학교 인문논총 24집(1990). 75쪽.

15) Hermann Hesse: Unterm Rad. In: ders.: Gesammelte Werke in zwölf Bänden. Band 2. Frankfurt am Main 1987. S. 8.

게 재현하고 있는 듯하다. 한스는 좋아하는 낚시도 포기하고 취미로 기르던 토끼들도 빼앗긴 채, 매일 4시까지 계속되는 학교 수업에 바로 이어서 교장 선생님께서부터 별도로 그리스어 수업을 받고, 그 다음 6시에는 마을 교회의 목사로부터 라틴어와 종교 복습 강의를 받는다. 또한 일주일에 두 번씩은 저녁 식사 후에 수학 교사로부터 한 시간씩 지도를 받는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저녁 늦게까지 등잔불 밑에서 학교 수업에서 담임교사로부터 받은 과제물인 쓰기와 외우기, 그리고 복습과 예습을 해야 했다. 한스는 화요일과 토요일에는 10시까지, 그 밖의 다른 날에는 11시나 12시까지, 때로는 더 늦게까지도 공부를 했다. 일요일이면 학교에서 미처 읽어보지 못한 책들을 읽거나 이미 배운 문법을 다시 복습하기에 급급했다.¹⁶⁾

슈투트가르트에서 118명의 수험생 중에서 36명만 합격할 수 있는 주정부 시험을 치르고 난 후에, 시험에 합격하면 원하는 건 뭐든지 말해도 좋다는 아버지의 말에 한스는 “방학 때 다시 낚시질하고 싶어요. 허락하시는 거죠? *Angeln möchte ich in den Ferien wieder. Darf ich?*”¹⁷⁾하고 대답한다. 주정부 시험에 기대 이상의 좋은 성적인 2등으로 합격한 후 한스는 좋아하던 낚시를 다시 할 수 있다는 기쁨에 들떠서 낚싯대를 만든다. 그리고 『수레바퀴 아래서』의 제 1장은 낚시를 좋아했던 작가 헤세 자신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말로 끝난다.

이제 한스는 7주나 되는 기나긴 방학을 지루하지 않게 보낼 수 있다고 확신했다. 왜냐하면 낚싯대를 손에 들고 있으면 혼자서 강가에 앉아 얼마든지 하루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었다.

Hans war nun sicher, in den langen sieben Ferienwochen keine Langeweile haben zu müssen, denn mit der Angelrute konnte er ganze Tage allein am Wasser zubringen.¹⁸⁾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여름 방학을 맘껏 즐기려던 한스 기벤라트의 포부는, 마을의 자라이자 학교의 영예가 된 한스에 대한 마을 교회의 목사와 교장

16) Vgl. ebd. S. 10f.

17) Ebd. S. 29.

18) Ebd. S. 33.

을 비롯한 학교 교사들의 기대와 명예욕, 그리고 한스 자신의 야망 때문에 좌절된다. 마을 교회의 목사는 한스에게 신학교에서의 생활과 학업에 대해 얘기해 주면서, 그 곳에서는 신약성서의 그리스어를 배우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하루에 한 시간, 기껏해야 두 시간 가량 그리스어로 씌어진 누가복음 두서너장을 함께 읽기를 제안한다. 그러자 한스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다. 왜냐하면 “신학교에서도 다른 학우들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야망과 인내심으로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¹⁹⁾을 한스는 잘 알고 있고, 꼭 그렇게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왜 그래야 하는지는 그 자신도 잘 모르고 있다. 3년 전부터 한스는 마을에서 주목받기 시작해서, 학교 교사들과 마을 교회의 목사, 아버지 그리고 특히 교장 선생님까지도 그를 격려의 채찍질로 숨 가쁘게 몰아세웠던 것이다. 교장 선생은 자신에 의해 일깨워진 한스의 아름다운 야망을 이끌어갔으며, 한스가 훌륭하게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교장 선생의 즐거움이자 영광이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교장 선생이 직접 한스 기벤라트의 집으로 찾아와서는 신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과목을 배운다면서, 한스에게 방학 동안에 그 과목들을 미리 공부해 둘 것을 제안한다. “주정부 시험에 대한 불안감과 승리감으로 인해 사라져 버렸던 야망 *Der in der Angst und im Triumph des Examens untergetauchte Ehrgeiz*”²⁰⁾이 다시금 살아난 한스는 또 다시 뜨거운 공부의 열기가 타올라서 이따금 시간을 내서 낚시를 하거나 산책을 할 때도 마음이 편치 않을 정도였고, 수학 교사는 한스의 수영 시간을 수학 과외 시간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래서 한스는 마을 교회의 목사에게 매일 한 시간씩, 교장 선생한테 매일 두 시간씩 그리고 수학 교사에게 일주일에 4번씩 찾아가서, 신학교에 들어가면 배우게 될 과목들을 미리 공부하게 된다.²¹⁾ 그리고 한스는 또 다시 숙제 더미에 파묻혀서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이를 악물며 숙제를 해야 했다. 이처럼 한스가 여름 방학 동안에 좋아하는 취미 생활도 포기하고 건강을 해쳐가면서 신학교에서 배울 과목들을 선행 학습하고 있다는 사실은, 성적 위주의 치열한 입시 경쟁 하에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한 일로 생각되었지만, 오늘날 독일

19) Ebd. S. 44.

20) Ebd. S. 49.

21) Vgl. ebd. S. 55.

청소년들에게는 낯설고 이해하기 힘든 일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성취에 대한 강박 관념’과 ‘승리에 대한 조급함’에 사로잡혀 있는 한스가 조금만 오래 산책해도 곧 피곤해지고 머리가 아프고 눈이 아팠으며, 밤에는 꿈 때문에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자꾸 잠에서 깨어나곤 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자면, 한스 기벤라트는 마울브론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로 두통과 피로감을 호소했다는 사실이다.

빌헬름 2세 통치하의 세기 전환기의 독일 제국의 학교 교육이 그러하듯이,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고 마울브론 신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엄격한 규율과 통제 하에 성적에 대한 압박감 속에서 억압적인 교육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그 당시 마울브론 신학교에 다니던 학생이 누구나 다 헤세의 주인공 한스처럼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신경 쇠약에 걸려 학교를 그만 두지는 않았다. 즉, 대다수의 입학생은 이런 고되고 비합리적인 교육 과정을 무사히 마쳤던 것이다. 이 사실은 한스 자신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한스에게는 일찍이 작가 헤세의 경우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정상적인 의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무언가 이상한 현상 etwas Seltsames”²²⁾, 즉 병적인 어떤 것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헤세의 소설에서 주인공 한스 기벤라트가 신학교에서 실패한 원인을 밝혀보기 위해서는, 헤세의 성향과 건강 상태 및 정신 치료를 받았던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헤세는 융 C. G. Jung에게서 정신 분석을 받았으며, 헤세의 경우에는 가족력이 있기 때문이다: “헤세의 친가 쪽 조부모와 아버지는 오랫동안 신경성 두통을 앓았는데, 일반적으로 신경쇠약증 현상으로 보인다. 할머니의 한 여동생에게 우울증의 병력이 있다.”²³⁾

이미 언급했듯이 헤세는 뷔르템베르크 주정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괴핑엔에 있는 라틴어 학교를 다녔다. 그 시험에 합격하면 신학교에서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그는 국가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 번 건강이 좋지

22) Ebd. S. 106.

23) 민성길: 헤세의 위기적 청춘. 실린 곳: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행동과학연구소 2007년 심포지움 - 헤세와 정신분석 - (2007년 11월 22일). 9쪽.

않다고 느꼈으며 특히 왼편 옆 가슴의 통증이 있었다”²⁴⁾고 한다. 헤세 자신의 이러한 건강 상태를 염두에 둔다면, 그의 자전적 소설인 『수레바퀴 아래서』에서 한스가 왜 그토록 자주 두통과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헤세는 『수레바퀴 아래서』의 헤르만 하일리와 마찬가지로, 1892년 3월 7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돈도 지니지 않은 채 마울브론 신학교에서 도망쳤다가, 경찰에게 붙잡혀서 학교에 돌아온 후 8시간 감금의 처벌을 받았다. 탈출 사건 후로 우울증에 빠진 헤세는 친구들에게도 더욱 따돌림을 당하여 괴로운 나날을 보냈고, 만성 두통과 불면증에 시달렸다. 헤세의 선생님들은 학교 탈출 사건을 계기로 헤세의 정신 상태를 심각하게 의심하기 시작했고,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헤세를 퇴교시키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교사들은 헤세의 부모님과 헤세를 한 학기 동안 휴학시키기로 합의했고, 그 결과 헤세는 1892년 5월 7일 마울브론 신학교를 나왔다.

헤세의 정신 상태를 관찰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헤세의 부모는 그를 바트 볼에 있는 요양원(Heilanstalt für Patienten mit ‘Seelische Störungen’)의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 목사에게 데려갔다. 헤세는 재빨리 바트 볼 요양 생활에 적응했다. 그러나 헤세는 곧 바트 볼에서의 생활을 만족스럽지 못하게 생각했고, 부모에게 보낸 편지에서 “지속적인 두통과 불면을 호소하였다”²⁵⁾고 한다. 그는 바트 볼에 2주 정도 머물렀는데, 치료 효과는 별로 없었다고 한다. 헤세는 점점 더 흥분 상태가 심해졌고, 8살 연상의 한 여성에게 구애했으나 거절당하자 자살 소동을 일으킨다. 이 일로 인해 블룸하르트 목사는 헤세 가족에게 슈테텐의 살 목사를 찾아갈 것을 권한다.

1892년 6월 22일 헤세는 그의 어머니, 외삼촌, 이복형과 함께 칸슈타트 근교의 슈테텐 성에 있는 정신 요양원 Nervenheilanstalt Stetten에 가서, 6월에서 9월까지 4개월 동안 그 곳에 머물렀다. 헤세가 슈테텐 요양원에 입원할 당시의 정신 상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치료하기가 어렵다. 과대망상을 앓고 있다. 위대한 존재로 소명되었다고 느낀다. 문학적으로 위대한 성공을 꿈꾼다.”²⁶⁾

24) 같은 책. 11쪽.

25) 같은 책. 13쪽.

26) 같은 책. 14쪽.

이와 같은 헤세의 증상은 그의 소설 『수레바퀴 아래서』에서는 한스 기벤라트가 공부할 때 “책 속에서 동경과 갈망에 사무친 인물이나 역사의 한 부분이 불쑥 튀어 나오는 일”²⁷⁾이 이따금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한스가 그리스어로 씌어진 복음서를 읽을 때,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배에서 내리는 장면은 너무나 가깝고 분명하게 느껴진 나머지 놀라움과 두려움에 떨기까지 했다고 묘사되어 있다.²⁸⁾

현재의 슈테텐의 정신과 의사는 헤세에 관한 과거 병력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조숙한 젊은 헤세의 반항은 우선적으로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항거, 즉 제한적인 시민적 환경의 대변자로서의 아버지에 대한 항거이다. 그는 자신의 제어할 수 없는 자유충동과 예술가적 노력을 제한하는 권위를 모두 거절한다. [...] 그러나 - 의사, 교사, 친척 등 - 헤세의 동시대인들은 경건주의적 시민환경의 협소함에 대한 반항에 대해 오로지 질병이라는 설명만 하고 있다. 진단은 신경병에서부터 전반적 불쾌감(우울증-민성길 주)을 넘어 초기 정신병으로 이어진다. 헤세의 훼손된 심혼(心魂)에 대한 증거는 그가 1916년에 - 아버지의 사망, 부인의 우울증 발병, 제1차 세계대전의 외적 압력으로 인해 - 신경쇠약에 걸려 처음으로 정신치료를 받으며, 1921년에는 퀴스나하트에서 C. G. 융에게 정신분석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전혀 의심할 여지없이 정신박약자와 간질병환자의 치료요양기관인 슈테텐 성은 젊은 헤르만 헤세에게 적합한 체류지가 아니었다. 헤세가 체류했던 기관들에서의 이야기, 즉 마울브론과 바트 볼과 슈테텐에서의 경험들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역사적 관점에서 교육적 근본문제를 새로이 제기해준다.²⁹⁾

세기 전환기의 학교 비판적 작품들에서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주인공의 사회화 과정은 아버지와 교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리고 어머니의 역할은 아주 미미하거나,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의 경우에서처럼 어머니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³⁰⁾ 헤세 소설의 맨 처음에 “중개업과 대리업을 하는 요제프 기벤라트 씨 Herr Joseph Giebenrath, Zwischenhändler und Agent”³¹⁾로 소개되는 한

27) Hermann Hesse: Unterm Rad. a.a.O. S. 102.

28) Vgl. ebd.

29) 민성길: 위의 책. 15쪽.

30) Vgl. Paul Mog: a.a.O. S. 17f.

스 기벤라트의 아버지는, “그의 내면생활은 속물적이었다. Sein inneres Leben war das des Philisters”³²⁾는 표현에서 분명해지듯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는 작가 헤세 자신의 그의 아버지에 대한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헤세의 아버지 요하네스 헤세 Johannes Hesse는 경건주의적인 종교적 생활을 자녀들에게 강요했고, 그들의 사소한 게으름이나 잘못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준엄한 원칙론자이며 금욕주의자였다. 어린 헤세는 이런 아버지에게 반항했고, 그의 아버지는 어린 아들을 매로 다스렸다. 헤세의 가정을 지배하고 있는 무거운 종교적 분위기와 어린 헤세에 대해 엄격했던 그의 아버지의 강압적 자세가 성장기의 소년 헤세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했고, 그리고 헤세가 학교에 들어가게 되자 그의 학교생활에까지 나쁜 영향을 끼쳤다. 취학 전의 헤세가 아버지에 대해 품고 있던 증오감과 적대심이 학교에 입학해서는 권위적이고 어린 학생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교사들에게로 옮겨져 있었다. 세기 전환기의 독일의 학교에서는 체벌이 허용되었는데, 헤세는 이런 체벌을 “도덕적 잘못을 교정하는 가장 간단한 해결책”³³⁾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자신은 불행하게도 학교와 가정에서 “두 사람의 추장”³⁴⁾에게 복종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쓰고 있다. 절대 권력자로 여겨지던 아버지에 대한 사춘기 시절의 헤세의 반항은, 15살이었던 헤세가 슈테텐의 정신 요양원에서 그의 아버지에게 보낸 1892년 9월 14일자 편지에 잘 나타나 있다.

매우 존경하는 나으리!

당신께서는 유별나게 기꺼이 희생하는 태도를 보이시니, 제가 당신께 7M이나 권총을 부탁해도 되겠지요. 당신께서는 저를 절망에 빠뜨린 이후로 하루 빨리 그 절망으로부터 저를 해방시킬 준비가 되어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6월에 이미 죽었어야 할 목숨이지요. [...]. “아버지”는 이상한 단어이며, 저는 그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하는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이겠지요. 그런 사람을 얼마나 갖고 싶었는지! 당

31) Hermann Hesse: Unterm Rad. a.a.O. S. 7.

32) Ebd.

33) Hermann Hesse: Hermann Lauscher. Meine Kindheit. In: ders.: Gesammelte Werke in zwölf Bänden. Band 1. Frankfurt am Main 1987. S. 232.

34) Ebd.

신이 제게 조언을 해주실 수는 없지요... 당신과 저의 관계는 점점 긴장이 더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인간이 아니라 경건주의자라면, 또 저의 모든 성격과 성향을 지금과는 정반대로 바꾼다면, 저는 당신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으며 또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범죄를 저지른다 해도, 헤세 선생님, 당신이 제게서 삶의 기쁨을 앗아가 버렸으므로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책임입니다.³⁵⁾

이 편지에서 헤세는 자기 아버지를 ‘매우 존경하는 나으리’ 또는 ‘당신[존칭]’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이론에 따르면 아버지에 대한 증오를 뜻한다.³⁶⁾ 헤세는 아버지에 대해 사랑과 미움의 양가감정을 가졌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양가적 감정은 이후 학교교사, 블룸하르트 목사, 슈테텐의 의사 등에게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³⁷⁾

그러면 헤세의 어머니에 대한 관계는 어떠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헤세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글 쓰는 재능은 물려주었지만, 어머니도 아버지와 같은 완고한 신앙인이었다. 아버지의 억압에 대해 아들 헤세가 느낀 고통에 대해서 어머니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고, 오히려 가중시켰다. 당시의 가부장적 사회 관습과 기독교적 도그마에 의해 아마도 어머니는 아버지 편을 들어야 했을 것이다. 정신 분석학적으로 보면, 헤세에게는 모성적 사랑과 돌봄, 보호 등이 크게 결핍되었다.³⁸⁾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듯, 헤세의 소설 『수레바퀴 아래서』에서는 어머니 없이 자란 한스 기벤라트가 마울브론 신학교에 입학하는 날을 아무 감동 없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서, “다른 많은 어머니들을 관찰하고는 그로부터 특별한 인상을 받았다”³⁹⁾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헤세의 소설은 한스가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기숙사 생활에서 학우들과 함께 어울리는 동아리를 만드는데 관심을 갖지 못하고, 기숙사의 학우가 한스에게 감정에 겨워 자신의 우정을 고백했을 때에도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것도 “어머니도

35) Ninon Hesse(Hg.): Kindheit und Jugend vor 1900. Hermann Hesse in Briefen und Lebenszeugnissen 1877-1895. Frankfurt am Main. 1966. S. 268.

36) 민성길: 위의 책. 21쪽 참조.

37) 같은 책. 20쪽 참조.

38) 같은 책. 21쪽 참조.

39) Hermann Hesse: Unterm Rad. a.a.O. S. 58.

없이 엄격한 소년 시절을 보내야 했던 한스는 사랑할 수 있는 기질을 잃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겉으로 드러나는 열정에 대하여 일종의 두려움⁴⁰⁾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쓰고 있다.

IV. 『수레바퀴 아래서』에 나타난 기숙사 문화

1880년에서 1918년 사이에는 독일에서 기숙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 특히 많이 나왔고, 그 결과 세기 전환기의 독일 문학에서는 기숙학교 문학(Internatsliteratur)이 하나의 장르로 성립이 되었다.⁴¹⁾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는 “최고의 문학적 수준으로 독일 문학에서 기숙학교 소설(Internatsroman)이란 장르를 확립⁴²⁾한 소설이다.

바젤 시민권을 갖고 있던 헤세는 열네 살이 되자 신학교에 들어가는 입학 허가를 받기 위해 뷔르템베르크의 시민권을 얻는다. 그리고 주정부 시험에 합격한 헤세는 1891년 9월에 마울브론 신학교에 입학한다. 헤세 자신은 그 곳에서 몇 달 살지 않았지만, 그의 소설 『수레바퀴 아래서』는 시토타 Citeaux 교파의 수도원으로 독일에 있는 가장 훌륭하고 잘 보존된 수도원 중의 하나인 이 마울브론 신학교를 배경으로 하여 이야기가 전개된다.

여기서는 먼저 마울브론 신학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뷔르템베르크에 있는 신학교들의 역사는 종교 개혁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회의의 직후 뷔르템베르크 영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크리스토프 공작은 영내의 교회와 학교를 정리하고 재건하였다. 가장 성공적인 개혁은 14개의 뷔르템베르크 수도원을 프로테스탄트 신학교로 만든 것인데, 이 학교는 영토 내의 열네 살에서 열여덟 살에 이르는 소년들에게 신학 공부를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이러한 학교는 점점 줄어서 마울브론을 위시하여 4개의 기숙학교만 남게 되었지만, 그들 신학교의

40) Ebd. S. 71.

41) Vgl. Klaus Johann: Grenze und Halt: Der Einzelne im »Haus der Regeln«. Zur deutschsprachigen Internatsliteratur. Heidelberg 2003. S. 89.

42) Ebd. S. 2.

영향력은 멀리 뷔르템베르크 밖에 있는 다른 학교에까지 퍼져나갔다. 그 신학교의 수준은 예나 지금이나 김나지움의 상급 4년에 해당된다. 학생의 지적 수준에 따른 엄격한 선발, 극히 간소하고 거의 수도승 같은 생활을 하게 하는 학교의 전통, 고대 언어에까지 걸친 무게 있는 고전 연구와 프로테스탄트식의 교육 이상 등은 마울브론 기숙 신학교의 독특한 특성이 되었고 막강한 영향력과 권위를 갖게 했다.⁴³⁾

마울브론 신학교에 입학한 전체 학생은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된다. 먼저, 작가 헤세가 이 기숙 신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살펴보자. 헤세는 12명의 동료와 함께 헬라스라는 방에 기거했는데, 자만심에 가득차서 자신을 헬레네라고 부르고 있다. 다른 방의 이름은 포룸, 아테네, 스파르타, 아크로폴리스, 게르마니아 등이었다. 아침에는 6시 30분에 일어나 6시 50분에는 아침 기도를 하러 간다. 수업은 7시 45분 정각에 시작된다. 공부는 정오까지 계속되다가 2시간을 쉬고 2시에 다시 시작된다. 저녁 식사 후 7시 30분에는 오락 시간이 있고, 저녁 기도 후에 하루 일과가 끝난다. 수업 시간은 일주일에 41시간이지만, 거기다가 토론 시간이나 연습 시간이 더 첨가돼야만 한다. 자유 시간은 거의 없고, 일요일에 산보를 할 만한 몇 시간을 겨우 얻을 수 있을 정도였다.⁴⁴⁾

이상과 같은 일과표를 보면 어려서부터 엄매이기 싫어하고 반항적 기질이 있는 헤세가 위와 같은 틀에 박힌 기숙 신학교 생활에 만족하며 잘 적응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헤세가 그의 소설에서 주인공인 한스 기벤라트가 기거하는 방 이름까지 자신이 실제로 사용했던 헬라스 방으로 정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수레바퀴 아래서』에 묘사된 마울브론 신학교의 기숙사 생활은 실제 헤세가 체험한 바와 매우 유사하리라고 추측된다.

헤세의 소설 『수레바퀴 아래서』에서 한스 기벤라트와 함께 헬라스 방에 기숙하게 된 아홉 명의 학우 가운데 네 명은 유별난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그 중에서 좋은 가문 출신의 슈바르츠발트에서 온 헤르만 하일너 Hermann Heiler는 벌써 첫날부터 “시인이자 문예 애호가 ein Dichter und Schönggeist”⁴⁵⁾라는

43) 베른하르트 첼러 저(박광자 역): 헤르만 헤세. 생애와 사상 2. 서울: 행림출판 1989. 29쪽 이하 참조.

44) 같은 책. 32쪽 참조.

45) Hermann Hesse: Unterm Rad. a.a.O. S. 8.

소문이 무성할 정도로 문학에 재능이 있는 아이로 나온다. 신학교에서의 수업은 혹독했고 여가 시간은 부족했지만, 저녁 무렵이면 기숙사에서는 싸움질이 드물지 않게 벌어지곤 했다. 그리고 기숙사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소년들 사이에는 깊은 우정이 맺어지기도 하고, 적대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시적 정서가 풍부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헤르만 하일너는 마음에 맞는 친구를 사귀기 위해 무척 애를 쓰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던 중 하일너는 자신의 엉뚱하고 괴팍한 성격을 한껏 드러내며 같은 헬라스 방의 학우와 심하게 몸싸움을 한 다음, 신학교 학생에게 가장 치욕적인 일로 받아들여지는 눈물을 보인 후 방을 나간다. 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자기 자리에서 하일너를 힐끔 쳐다만 보던 한스는 사라진 하일너를 찾으려 나선다. 차갑고 어두운 침실에서 꼼짝 않고 있던 하일너는 천천히 팔을 펴서 한스의 어깨를 붙들더니, 서로의 얼굴이 닿을 만큼 한스를 끌어당긴다. 갑자기 상대방의 입술이 자기의 입에 닿는 느낌 때문에 놀란 한스의 심장은 이상야릇한 감정에 사로잡혀 불안해서 두근거린다.

[하일너와] 어두운 침실에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갑자기 서로 입맞춤을 나눈다는 것은 한스의 모험심을 충족시켜 주면서도 새롭고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

Dies Beisammensein im dunkeln Dorment und dieser plötzliche Kuß war etwas Abenteuerliches, Neues, vielleicht Gefährliches [...].⁴⁶⁾

사춘기의 사내아이들만 입학하여 이성과의 교제가 차단된 채 마치 수도승처럼 생활하고 있는 신학교의 기숙사에서 맺어진 한스 기벤라트와 헤르만 하일너의 우정이 여기서는 동성애인 것처럼 매우 친밀하면서도 위험하게 묘사되어 있다.

하일너가 기숙사의 동료 학우와 싸운 후 교장 선생님께서부터 “무거운 금고형 eine schwere Karzerstrafe”⁴⁷⁾을 받자, 하일너는 내버려진 “문둥병 환자처럼 wie ein Aussätziger”⁴⁸⁾ 혼자가 되고 만다. 그리고 한스도 그의 편에 서기 위한

46) Ebd. S. 77.

47) Ebd. S. 84.

48) Ebd. S. 85.

용기가 없어서 다른 학우들처럼 그를 피한다. 한스는 친구로서의 의무감과 학생으로서의 공명심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겪고, 친구를 배신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린다. 그러다가 헬라스 방에서 함께 기숙하던 힌딩어 Hindinger가 죽자, 그의 죽음을 계기로 한스의 내면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소년에서 청년으로 ein Jüngling aus einem Knaben”⁴⁹⁾ 성숙한 한스는 하일너에게 용서를 청하고, 이 두 소년의 우정은 다시 맺어진다.

수도원에서는 새로이 맺어진 하일너와 한스의 우정에 대해 적지 않은 흥분이 일어났고, 다른 학우들은 하일너를 꺼리고 한스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조숙한 두 소년은 그들의 우정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첫사랑의 달콤한 비밀 etwas von den zarten Geheimnissen einer ersten Liebe”⁵⁰⁾을 다른 학우들에 앞서 맛본 것이다. 그러나 하일너와의 우정이 깊어지고 즐거워져 갈수록 모범생이었던 한스에게는 공부가 점점 더 힘들게 되었고, 학교는 점점 더 낯설게 여겨졌다. 학교 교사들은 모범생인 한스 기벤라트가 수상쩍은 헤르만 하일너의 나쁜 영향을 받아 문제 학생으로 전락해 버린 사실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소년은 기숙 신학교의 동료 학우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신세가 되었다. 이처럼 세기 전환기의 독일의 기숙 신학교를 배경으로 씌어진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에는 현재 한국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가장 참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왕따’ 현상이 소설 속의 두 주인공을 통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개성이 너무 강해 학교 체제에 저항적이고 창의적인 하일너의 “천재적 기질 ein gewisses Geniewesen”⁵¹⁾은 신학교의 교사들에게는 섬뜩하기만 하다.

그들(교사들)의 눈으로 볼 때 천재들이란 자신들에게 전혀 존경심을 보이지 않는 불량한 학생들에 다름 아니다. 14살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고, 15살에 사랑에 빠지고, 16살에는 술집에 드나들게 된다. 그리고 금지된 책을 읽으며, 몰염치한 작문을 쓰고, 때로는 선생을 조롱하는 눈빛으로 뚫어지게 쳐다보기도 한다.

Für sie sind Genies jene Schlimmen, die keinen Respekt vor ihnen haben, die mit vierzehn Jahren zu rauchen beginnen, mit fünfzehn sich verlieben, mit sechzehn in

49) Ebd. S. 94.

50) Ebd. S. 97.

51) Ebd.

die Kneipen gehen, welche verbotene Bücher lesen, freche Aufsätze schreiben, den Lehrer gelegentlich höhnisch fixieren [...].⁵²⁾

여기서 학교 교사들이 혐오하는 천재 학생이란 오늘날 우리의 학교 교육 현장에서 엄중한 감시의 눈초리를 늦추지 않고 특별히 지도해야 하는 ‘문제 학생’이 하는 행동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 무척 흥미롭다.

예전에 앓던 우울증이 더 심해진 하일너는 신경이 곤두서서 학우들과 싸우기도 하고 어리석은 장난을 치기도 하다가, 마침내는 학우들과 적대적인 대립 관계에 놓이게 되어 완전히 고립된다. 그리고는 하일너는 경미한 신경 쇠약 증세를 보이고 있는 한스의 산책길에 동행해서는 안 된다는 교장 선생의 단호한 금지령을 어기고 한스와 함께 거의 매일 산책을 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교장 선생이 하일너를 엄하게 꾸짖자, 하일너는 어느 누구도 자기들의 교제를 금지할 권리는 없다고 교장 선생에게 대든다. 그 결과 하일너는 여러 시간 동안이나 감금되었고, 한스와 함께 외출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금지령을 받게 된다. 다음 날 수업 시간에 하일너가 없어진 사실이 밝혀진다. 수도원에서 도망쳐 나온 그는 이를 후에 순찰 중이던 경찰의 손에 붙들린다. 수도원에 붙잡혀온 하일너는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도 없고, 용서를 빌라는 학교 측의 요구도 거절한다. 그 결과 하일너는 명예스럽지 못한 퇴교 처분을 받고, 신학교를 떠나게 된다. 뒤에 남은 한스에게는 하일너의 도주를 알고 있었으리라는 의혹의 눈초리가 따라 다녔고, 이로 인해 한스에 대한 학교 교사들의 호의도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한스는 이제 더 이상 학생들의 무리에 끼어들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예전에 하일너가 그랬던 것처럼, 한스는 문동병 환자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여기서 마울브론 기숙 신학교의 동료 학우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는 한스 기벤라트와 헤르만 하일너의 우정은, 헤세가 마울브론 신학교 시절에 친구를 잘 사귀지 못했으며, “그가 가까스로 맺는 친구 관계는 다른 친구들 사이에 쉽사리 웃음거리가 되었다”⁵³⁾는 헤세 자신의 체험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울증에 시달리고 반항적이고 창조적인 추진력을 지닌 천재적 기질

52) Ebd.

53) 민성길: 위의 책, 12쪽.

의 하일너는 작가 헤세의 한 분신이라고 할 수 있다. 헤세의 또 다른 분신으로 그의 병적이고 상처받기 쉬운 기질을 대변하고 있는 한스 기벤라트는 소설의 끝 무렵에 강에 빠진 시체로 발견된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사고인지 자살인지 소설 속에서 분명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수레바퀴 아래서』의 제 4장 처음에는 신학교에서 4년 동안의 학업을 끝마치지 못하고 이탈하는 학생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한스 기벤라트와 함께 헬라스 방에 기숙하던 힌딩어라는 학우가 1월에 연못에 빠지는 사고로 죽고, 그의 장례식이 거행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이로써 주인공인 한스 기벤라트의 죽음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 밖에도 헤세의 소설에는 한스가 어렸을 때 낚시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르쳐주었던 절름발이 헤르만 레히텐하일 Hermann Rechtenheil이 2월 어느 날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하더니 재빠르게 숨을 거두고 조용히 먼 나라로 떠났다”⁵⁴⁾고 씌어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죽음 외에도 『수레바퀴 아래서』의 제 4장 첫 부분에는 자살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다.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상급 학년에서는 청춘의 고뇌에 빠져 어찌할 바 모르는 소년이 권총의 방아쇠를 당기거나 물에 뛰어들어 자살함으로써 짧고 어두운 탈출구를 찾는 일도 일어난다.

Gelegentlich, doch selten und nur in der älteren Klasse, kommt es etwa auch einmal vor, daß irgendein ratloser Junge aus seinen Jugendnöten einen kurzen, dunkeln Ausweg durch einen Schuß oder durch den Sprung in ein Wasser findet.⁵⁵⁾

위의 구절은 헤세가 그의 동생인 한스 헤세 Hans Hesse의 자살을 예견하고 썼다고 한다.⁵⁶⁾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세기 전환기의 문학 작품에는 죽거나 자살한 청소년의 얘기가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당시 자살은 세기 전환기 시기의 하나의 문화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마울브론 신학교의 기숙사에서도 이러한 문화가 관찰되고 있는 것이다.

54) Hermann Hesse: Unterm Rad. a.a.O. S. 131.

55) Ebd. S. 89.

56) 민성길: 위의 책. 18쪽.

V. 맺는 말

본 논문에서는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에 나타난 ‘청소년의 학교와의 불화’ 문제를 신역사주의 관점에서 고찰해 봄으로써, 세기 전환기에 독일 사회를 배경으로 씌어진 이 소설이 오늘날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과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즉, 소설의 주인공인 한스 기벤라트가 최우등생이 되기 위해 학교에서의 정규 수업 외에 밤늦게까지 과외 공부와 선행 학습을 하고, 문제 학생인 헤르만 하일너와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기숙 신학교에서 동료 학우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모습은 현재 한국 학생들의 교육 현실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는 듯 했다. 그리고 모범생이자 최우등생이었던 한스 기벤라트가 신학교에서 실패하게 된 이유를 밝혀보기 위해서는, 『수레바퀴 아래서』의 미학적 구조 분석과 병행하여 작가 헤세의 성향과 건강 상태 및 정신 치료를 받았던 진료 기록 등을 함께 고찰해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왜냐하면 작가 자신의 청소년기의 위기의 체험을 바탕으로 씌어진 『수레바퀴 아래서』의 주인공 한스 기벤라트는 작가 헤세의 병적이고 상처받기 쉬운 기질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학교에서 신경 쇠약에 걸려 고향집에 돌아온 한스는 “죽음에 대한 생각 der Gedanke an den Tod”⁵⁷⁾에 사로잡힌다. 헤세의 소설에서 주인공 한스는 끝내 죽음에 대한 병을 극복하지 못한 채 물에 빠져 죽는다. 그러나 작가 헤세는 위기 극복 방식에 있어서 자신이 존경했던 괴테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일찍이 괴테가 ‘베르터’ 소설을 쓰면서 자신의 우울증, 자살 충동에서 해방되었듯이, 헤세도 소설 『수레바퀴 아래서』를 쓰면서 마울브론 신학교에 입학했다 퇴학당하고, 그로 인해 우울증과 신경증 때문에 정신 치료를 받아야 했고, 자살 기도도 여러 번 했던 그의 청소년기의 위기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킨다. 다시 말해서, 글쓰기란 작가 헤세에게는 ‘자기 치료’ 과정인 것이다.

작가인 헤세가 마울브론 신학교 시절에 겪은 그의 위기적 경험을 글쓰기를 통해 극복한 것처럼, 학교생활이 원만하지 못한 한국의 청소년 독자들은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를 읽고 그들의 청소년기의 위기를 극복할 지혜를 얻을

57) Hermann Hesse: *Unterm Rad*. a.a.O. S. 123.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헤세의 이 소설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필독서로 권장할 만하며, 청소년 문학의 사회적 필요성을 충족시킨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일차문헌

- Hesse, Hermann : Hermann Lauscher. Meine Kindheit. In: ders.: Gesammelte Werke in zwölf Bänden. Band 1. Frankfurt am Main 1987.
- Hesse, Hermann: Unterm Rad. In: ders.: Gesammelte Werke in zwölf Bänden. Band 2. Frankfurt am Main 1987.
- Hesse, Ninon(Hg.): Kindheit und Jugend vor 1900. Hermann Hesse in Briefen und Lebenszeugnissen 1877-1895. Frankfurt am Main. 1966.
- Rilke, Rainer Maria: Die Turnstunde. In: ders.: Werke in sechs Bänden. Band III,1. Insel Verlag. Frankfurt am Main 1982.
- Walser, Robert: Jakob von Gunten. Ein Tagebuch, Zürich/Frankfurt am Main 1985.

이차문헌

- 김경연: 독일 ‘아동 및 청소년문학’ 연구: 교육적 관점과 미적 관점의 역사적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김석도: 헤르만 헤세의 교육관. 실린 곳: 서울대학교 인문논총 24집(1990).
- 김종대: 독일 청년문학과 청년문화. 문학과 지성사 1990.
- 민성길: 헤세의 위기적 청춘. 실린 곳: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행동과학연구소 2007년 심포지움 - 헤세와 정신분석 -.
- 베른하르트 쉐러 저(박광자 역): 헤르만 헤세. 생애와 사상 2. 서울: 행림출판 1989.
- Böhme, Hartmut / Matussek, Peter / Müller, Lothar: Orientierung. Kulturwissenschaft. Was sie kann, was sie will. Hamburg 2002.
- Ewers, Hans-Heino: Literatur für Kinder und Jugendliche. München 2000.
- Johann, Klaus: Grenze und Halt: Der Einzelne im »Haus der Regeln«. Zur deutschsprachigen Internatsliteratur. Heidelberg 2003.

- Kaes, Anton: Einführung in den New Historicism. 실린 곳: 독일어문화권연구. 제15집 (2006).
- Mattenklott, Gundel: Zauberkreide. Kinderliteratur seit 1945. Frankfurt am Main 1994.
- Mix, York-Gothart : Selbstmord der Jugend. H. Falladas Der junge Goedeschal, J. R. Bechers Abschied, H. Hesses Unterm Rad und der Erziehungsalltag im Kaiserreich. In: Germanisch-Romanische Monatsschrift. Band 44(1994). S. 63-76.
- Mog, Paul: Opfertode. Hesses Unterm Rad und die literarische Schulkritik der Jahrhundertwende. In: Cornelia Blasberg(Hg.): Hermann Hesse 1877 -1962 - 2002. Tübingen 2003.
- Montrose, Louis A. : Die Renaissance behaupten. Poetik und Politik der Kultur. In: Bassler, Moritz(Hg.): New Historicism. Literaturgeschichte als Poetik der Kultur. Frankfurt am Main 1996.
- Noob, Joachim: Der Schülerelbstmord in der deutschen Literatur um die Jahrhundertwende. Heidelberg 1998.

Zusammenfassung

Vom Konflikt der Jugendlichen mit der Schule anhand der neu-historistischen Methode

- Am Beispiel von Hermann Hesses *Unterm Rad*

Eun, Tscheong-Yun (Sungshin Frauen Uni)

In seinem autobiographischen Roman *Unterm Rad* demonstriert Hesse am Beispiel des jungen Hans Giebenrath, wie ein begabter, aber sensibler Junge ‘unter die Räder’ des mächtigen Erziehungsapparates der wilhelminischen Ära gerät. Anhand der neu-historistischen Methode versucht die vorliegende Arbeit den Konflikt der Jugendlichen mit der Schule darzustellen.

Interessanterweise ähnelt der Tagesablauf der Hauptfigur Hans Giebenrath in Hesses

Roman der Situation der heutigen koreanischen Schüler, die sich auf die Aufnahmeprüfung konzentrieren müssen. Hans bekommt Extra-Unterricht, um sich für das Landesexamen in Stuttgart vorzubereiten. Er besteht schließlich als Zweiter das Landesexamen. Dies erlaubt es ihm, ein Seminar in der Klosterschule in Maulbronn zu besuchen. Aber nach dem Bestehen des Examens erhält Hans in den Ferien täglich einige Stunden Unterricht, um im Seminar weiterhin zu den Besten zu gehören.

Im Kloster Maulbronn schließt er mit dem überschwänglichen, zum Künstler veranlagten Hermann Heilner Freundschaft. Hans' Anschluss an Hermann Heilner hat zur Folge, dass er bei den Lehrern selbst auch in Misskredit gerät. Noch schlimmer ist die Tatsache, dass die beiden von den Schulkameraden im Internat gemieden werden. Ein solches Verlassenwerden von den Freunden lässt sich auch in der koreanischen Schule so häufig beobachten, was für die betreffenden Schüler unerträglich ist.

Hans' Leistungen im Internat werden immer schlechter. Mit der Zeit verschlechtert sich sein Gesundheitszustand. Schließlich erleidet er einen Zusammenbruch, ihm wird ein Nervenleiden attestiert. Hans begibt sich in den Urlaub nach Hause und verbringt dort einige untätige Wochen. Seine Müdigkeit steigt, und er hegt Suizidgedanken. In Hans spiegelt sich der Autor Hesse wider. Ähnlich wie Hans hatte auch Hesse Suizidgedanken. Aber er überwindet seinen gescheiterten Selbstmordversuch, indem er den Roman *Unterm Rad* schreibt. In diesem Sinne dient das Schreiben Hesse als ein Prozess der Selbsttherapie. Auch für die koreanischen Jugendlichen, die einen Konflikt mit der Schule haben, ist Hesses *Unterm Rad* sehr empfehlenswert, damit sie ihre jugendliche Krise gut überwinden können.

【주제어】 : 신역사주의, 학교와의 불화, 청소년 문학, 헤세, 수레바퀴 아래서

【Schlüsselbegriffe】 : New Historicism, Konflikt mit der Schule, Jugendliteratur, Hesse, Unterm Rad

【필자 E-Mail】 : euntyun@hanmail.net

논문투고일 : 2007.11.25 | 논문심사일 : 2007.12.01 | 게재확정일 : 2007.12.05